

## 황우석교수 에이즈치료제 개발중

황우석 교수팀이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와 공동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황 교수와 '의형제'를 맺고 공동 연구를 수행중인 제럴드 새튼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는 18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05 서울 바이오메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튼 교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한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황 교수가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팀과 함께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진 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새튼 교수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수용체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된 세포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새튼 교수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세포의 핵을 떼어내(줄기세포를 만들면) 면역력이 증강된 세포를(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포의 핵을 떼어내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은 황 교수팀이 여러 차례 성공한 바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5.10.19〉

## 에이즈수혈' 韓赤 책임없어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게 법원이 의학적 한계를 인정. 대한적십자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 환자의 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12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걸린 홍모씨(19)와 홍씨 부모가 대한적십자사와 홍씨 수술을 담당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더라도 감염 여부를 나타내는 항체형성에 4~12주가 걸릴 수 있어 적십자사가 헌혈 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의학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고 있는 효소면역검사법이 바이러스를 발견할 확률이 99.9%이지만 검사 혈액이 미항체 형성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상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최고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홍씨측은 보상액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경향신문 2005.10.14〉

## 아프리카 농업, 에이즈로 고사 위기 남지역 성인 30~40% 보건자

아프리카 농업이 에이즈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아프리카 주요 언론이 최근 영국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전체 성인의 30~40%가 에이즈 보건자다.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2천500만 명을 넘는다.

농업단체인 '옥스팜 말라위 프로그램'의 벨리 니안고와 국장은 "에이즈에 걸린 남자들은 농토에 일하러 나갈 수 없다. 비가 조금만 덜 내려도 농토는 금방 황폐해진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주민 중 80%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한다.

르완다의 경우 에이즈 탓에 농업 노동력이 60~80% 줄었다. 말라위에서는 농가의 70%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 부르키나파소 농촌 가족 20%는 농업을 포기했다.

노동력이 모자라면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시기가 늦어져 각국 농부들은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축 사육도 줄어들고 있다. 케냐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에 농업 생산량이 68% 감소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알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자 농민들은 수확량이 떨어지지만 일손이 덜 가는 작물을 대체 재배하기 시작했다. '에이즈·농업을 위한 시스템 제안(SWIHA)'이라는 단체가 최근 '아프리카 쌀 센터'의 자료를 기초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농민들은 커피 같은 환금성 작물에서 카사바 같은 노동집약성이 낮은 작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2005.10.11〉

## 뉴질랜드, 인터넷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확산

뉴질랜드에서는 인터넷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록적인 에이즈 감염률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스는 9일 에이즈 재단 조사결과를 인용해 올해 들어 4월에 한 명꼴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을 통한 데이트가 에이즈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난 2001년 21명이던 남성 동성애자 중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이 지난해 73명이 새로 추가된 데 이어 금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이 늘어나는 것은 인터넷 데이트 웹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에이즈 보건지들이 비교적 오래 살 수 있고, 병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 보건자가 자신의 섹스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얘기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웰링턴 법원의 수전 토머스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인터넷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인 저스틴 델리에게 그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2005.10.08〉

## 복지부 "에이즈혈액 출고 개선조치, 연내 마련·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혈액 출고와 관련된 보고 및 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및 공표체계가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혈액의 출고, 수혈감염 사례 확인 등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유형별로 적십자사의 보고 및 발표 등 조치내역을 규정한 적십자사의 임무 수행지침을 12월까지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재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되,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해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체혈토록 하는 개선 조치를 11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데일리뉴스 2005.10.11〉

## 10대 에이즈 감염률 2001년 이후 20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2001년 이후 발생한 에이즈 감염인 중 0세부터 19세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대(10세~19세)의 에이즈 감염률이 2001년(6명) 대비 2004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10대 에이즈 감염인은 총 31명이며, 이들 중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이는 총 31명 중 역학조사 중인 4명과 기타 및 무응답 2명을 제외하면 10대 감염인 100%가 성 접촉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1년 이후 감염된 10대 남성을 살펴보면 총 24명 중 54%에 해당하는 13명이 동성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됐고, 25%인 6명은 이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31명 중 42%(남성 13명)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39%인 12명(남성6명, 여성6명)은 이성간 성접촉으로 인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10대 감염인 중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01년 10대 감염인은 전체 환자(6명) 중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비율은 33%(2명)다. 이는 이성간 성접촉을 통한 비율(65%, 4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이 수치가 역전돼 전체(6명) 중 65%(4명)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으며, 올 6월 기준으로 역학조사 중에 있는 2명을 제외하더라도 50%(2명)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케이스다.

〈메디팜 2005.10.10〉

## 독일 에이즈 신규 감염인 20% 증가

독일의 에이즈 감염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들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의 발표를 인용, 올 상반기에 1천164명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특히 신규 감염인의 58%는 남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이라고 로버트 코흐 연구소는 밝혔다. 코흐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등 대도시의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대부분 2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이며 이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7.5배나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디 벨트는 전했다.

2004년 현재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 수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인 수가 2천50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10.06〉

## 예방협회, 주민증 확인없는 에이즈 검사 실시

"주민번호와 이름도 안 묻습니다. 편안하게 에이즈 검사 받으러 오세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전으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에이즈 무료 상담 및 익명 검사가 가능해졌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회(이하 예방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에이즈 무료 상담 및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익명 검사는 그동안 서울지역에서만 진행됐으며 대구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방협회에 따르면 기존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만 이뤄졌으며 검사결과 통보 등을 위해 검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익명검사는 20분 만에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키트를 사용, 오차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또 예약제로 운영, 이곳을 찾는 사람끼리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만 실시되는 익명검사는 1시간동안 진행되며 이용방법은 전화로 예약시간을 정한 뒤 센터를 방문, 피검사만 받으면 된다.

〈대구일보 2005.10.03〉

## 수혈로 30대 여성 2명 에이즈에 감염

30대 여성 2명이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8월 공급된 김모(23·남)씨의 혈액을 수혈받아 A(30)씨, B(35)씨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에이즈 감염 여성으로부터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에이즈에 2차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됐었다. 백혈병 환자인 다른 한명도 김씨의 혈액을 수혈받았으나 1주일여 뒤에 죽는 바람에 에이즈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에이즈 감염 사실은 지난 7월 에이즈 감염인으로 최종 판명된 김모씨의 과거 헌혈 경력조치를 통해 밝혀졌다. 김씨는 지금까지 8차례 헌혈했으며 이 가운데 2003년 8월 26일 헌혈한 혈액으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3년 6월 14일에도 헌혈했으나 수혈자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측은 김씨가 2003년 6월 1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종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가 22일간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핵산증폭검사가 도입되면서 11일로 대폭 축소됐다. C형 간염도 84일에서 23일 줄어들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주어지고 C형 간염자는 2천만~4천만 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인은 총 16명이다. 〈중앙일보 2005.09.29〉